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탐욕 버리고 양심 지키며 건강 관리하자



김석주

탐욕은 인생을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무섭고 잔인하며 악마처럼 검고 지옥같이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같이 순수하고 사랑보다 더 달콤한 둔갑술의 달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원망스런 분노와 좌절을 참고 이겨내야만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잔인하고 혹독한 삶의 시련들은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고 바쁜 내일의 일상이 되도록 안내하려는 계시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말고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하자.

하के 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탐욕에는 눈이 없어서 많은 사람을 장남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희와 풍요가 찾아올 것이니, 우리는 희망이 야심으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에서 즐거운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며 즐겁게 살면 된다.

시설

개선은 커녕 갈수록 노골화되는 지역편중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정책이 갈수록 노골화·심화되고 있다. 3년 연속 여당 단독 처리라는 불명예를 남긴 새해 예산안이 '형님·실제 챙기기'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단행된 군(軍) 인사도 유례가 드문 지역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년사령관 내정자는 함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군 안팎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로, 포항과 함께 현 정권의 실제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상주 출신이다.

'구제역 비상' 전남도 차단에 총력 경주해야

경북 일대를 휩쓴 구제역이 15일 경기도 양주·연천·파주 등 수도권 일대로 번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9일 안동에서의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 당국이 설치한 방역망이 사실상 뚫린 것이다.

매체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후 약방문식' 방역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종교칼럼



송정용

성경에는 무지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벙이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 죄 지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기고



김윤선

지난 9일 긴급 교직원 회의를 개최했다. 진로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사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안건에 대해 '탐양고등학교 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한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한다면, 학생들의 영어수업을 담보할 수 있는가?

무지개 사상

는 결론이었습니까. 당대에도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이 살아 보겠다고 힘쓰던 노아의 가족만 살려 두고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한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인류의 가장 기쁜 날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로교사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로 밀려나야 한다. 영어를 감축하거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과학을 감축하자니 생물교사를 감축해야 하는데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타이어 제조일자 확인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최근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하면서 지난해 새 타이어가 고속도로 주행중 펑크나 차량이 크게 과속했다는 보도가 생각났다.

無等鼓

어릴적 이맘때면 눈사람을 만들며 놀던 추억이 떠오른다. 주먹 크기의 눈 뭉치를 눈밭에서 굴리면서 커다란 뭉통을 만들고 뭉통에 머리를 얹던 기억이 새롭다.

눈사람



시인 정호승씨는 '눈사람'이란 시에서 동심을 잃어가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 보게 했다. 시인은 '눈사람이 흘린 눈물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온몸을 녹이며 인간의 희미한 꿈을 그려보는 눈사람을 보았습니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김충현, 사장: 박정호, 발행: 권영민, 편집: 김홍도, 대표: 김충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